도심 명상포교 대가 '禪벤져스' 총출동

참선지도자協, '5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 개강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월호 · 각산 · 마가 · 금강 스님 등 숲속과 도심서 오랫동안 명상 포교를 해온 선승들이 함께 손잡고 뭉쳤다. 목적은 오직 하나. 참선과 명상 수행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곧 침체에 빠진 한국불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지름길이란 판단에서다.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어벤져스처럼, 이들은 스스로를 佛벤져스, 禪벤져스로 자처하고 팔을 걷어 부쳤다.

월호 · 각산 · 마가 스님과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 등 4명은 5월 31일 오후 2시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 5층 대법당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가 6월2일부터 9월1일까지 13주 과정으로 '제5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각산 스님은 "참선아카데미는 참선지도자협회의 강좌로 조계종 내에서는 아마도 최초로 참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참선을 위주로 하돼 명상을 포괄한다는 취지로 강좌들이 구성돼 있으며, 지도자 육성을 위해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청강은 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산 스님은 "풍부한 수행과 참선 실참 경험을 갖춘 선승을 비롯해 명상심리, 명상의학 등 융복합 분야서 활동하는 최고의 명상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했다"면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포교를 제시할 이번 대강좌는 선(禪) 명상법의 프로페셔널 세계로 안내할 것"이라고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공동회장 마가 스님도 "참선아카데미를 통해서 불교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참선을 위한 예비단계가 필요하다 싶어 자비명상을 만들어 지도하고 있다"며 "먼저 내 마음의 모난 부분을 깎아 가면서 둥글둥글하게 굴러가기 위한 준비 작업 등을 한 뒤 본격 수행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강좌는 각자 자기 분야의 최고봉인 12명의 명상 대가들이 실생활서 적용하는 마음공부와 명상법을 시대와 공감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은 어떤지, 내 심리상태는 어떤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될 것인지를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월호 · 각산 · 마가 스님과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 등 4명은 5월 31일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 5층 대법당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3주 과정으로 '제5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일까지 온오프 강좌 진행
월호 · 각산 · 마가 스님 등 강사
"즉석 · 부분 해탈의 참 맛 선사"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도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즉석식품이 유행이고 넘쳐난다. 그런데 왜 즉석 해탈은 없을까 평소 생각했다. 한국불교가 활성화되려면 해탈이라는 게 대중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탈이라는 게 대중들에게 너무 멀어졌다. 해탈이 산속과 선방에서만 30년 이상을 장좌불와한 사람도 할까말까 한 어려운것으로 인식이 돼버렸는데, 이런 현실에서는 불교가 대중화 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불교의 핵심이 해탈에 있기 때문"이라며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여기서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원래 선의 정신은 단박에 깨치는 즉석 해탈에 있다. 이런 선의 본래 정신이 살아나야 한국불교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번 강좌 때만이라도 참가자들에게 부분 해탈의 참맛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이번 강좌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은 "너무 어렵고 멀리 있는 불교로는 미래가 없다. 역수입돼서 들어오는 서양의 마인드풀리스도 초기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서양인들이 알기 쉽게 바꾸어 놓은 것 뿐"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서 참선을 기반으로 명상을 대중화시키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일본 선센터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중심에도 진출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영세한 한국인 위주의 사찰들만 미국이나 유럽 속 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듯 참선은 어렵고 힘들 것으로만 인식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진력해온 도심 속 포교 대표 수도승 네 분의 전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 참불선원서 열린다. 수강생은 오프라인 70명, 온라인 200명을 모집하며, 전체 수업 일수의 70% 이상 출석해야 졸업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과 녹화 영상 모두 청강 가능해 직장인들도 참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참선지도사 2급 자격증과 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을 겸해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첫날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각산 스님의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강의를 시작으로 △마가스님의 잠깐 멈춤(마가 스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공동회장) △참사람수행법(금강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행복에 이르는 참선명상(월호 스님, 행불선원장) △현대사회의 참선과 명상(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운영위원장) △선승으로 체험한 참선법(혜우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부의장) △세계명상센터 현황(각산 스님) △선방 수좌의 실제 참선(정과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선승) △수행법의 두 흐름(김열권 위빠사나 붓다 선원장) △참선이란 무엇인가(월암 스님, 한산사 회주) △불교명상심리치료(전현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질의응답(각산 스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강 일환으로 충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과 봉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을 직접 찾아가 법문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실참 수행을 기본으로 '참선지도사(명상마스터)'를 양성하기 위해 제방 선원서 정진한 선승들과 정신의학, 명상심리학 등 전문가와 교수들이 참여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명상대강좌를 개최하고 충주 석종사, 인제 백담사, 봉화 축서사, 양평 상원사 등 사찰에서 '참선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며 '참선지도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현장 대면 강의는 30만원,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20만원, 청강은 9만원이다. (02)566-0804, 1577-3696

정치 · 경제 · 연예계…강남서 불교 스터디

수미산 원정대 1기 입학식
자승 스님 비롯 활동 격려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불교중흥의 씨앗이 될 수미산원정대가 3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5월 27일 보우당에서 제1기 수미산원정대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입학한 74명의 1기 수미산원정대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새 불교로의 발전을 서원했다.

이들의 첫걸음에는 교계 주요인사들도 참여해 격려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수미산원정대 단장 원명 스님 등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 전 수미산원정대 대중은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도 합장으로 인사했다.

이번 제1기 수미산원정대에는 총 74명의 사회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원욱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계 인사부터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김완표 삼성SDS부사장, 안창섭 여은 대표 등 경제계 인사, 김동건 변호사를 비롯한 강동근 김&장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윤성이 동국대 총장, 민세진 박찬규 신영섭 교수 등 교육계 인사 등 면면은 다양했다.



수미산원정대 1기로 참여한 입학생들이 불법 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부부간에 참석한 이들부터, 종교가 없지만 주변의 권유로 오게 된 이들까지 참여자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이었다. 〈울지마 톤즈〉를 제작한 김형진 KBS PD와 명상을 즐겨하던 이상묵 삼성생명 고문 등은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색과 성찰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 참석했다.

불교계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던 배우 김태겸 씨,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한중문화센터 원장 등은 초심불자로 그동안 깊게 알지 못했던 불교를 보다 잘 알기 위해 수미산원정대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불자로 트로트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가수 송가인 씨도 특별입학생으로 함께했다.

제1기 수미산원정대 교육일정은 불교기초교육부터 사찰문화체험, 불교문학과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다.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에서 불교의례와 사찰예절을 배우며, 2강과 3강에서는 불교 기본교리 교육이 진행된다. 4강에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등 불교수행이, 5강인 6월 25~26일 혹은 7월 2~3일에는 삼보사찰 성지순례가 이어진다.

6강과 7강에서는 봉은사 사찰탐방을 통해 불교미술사 교육이, 8강에서는 사찰음식과 차 문화, 9강에서는 불교와 문학, 10강에서는 불교사 및 경전산책, 11강에서는 불교와 과학의 접점 탐구 등이 이뤄진다.

교육과정을 구성한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불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했다"며 "신명나는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2기 3기 예비 수강생 또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초심불자로서 수미산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금나나 동국대 교수는 "불교는 종교가 아닌 문화재로 남게 된다는 회주 스님의 뜻에 힘을 보태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모태불자이긴 하지만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롭게 보존처리를 마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의 모습.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제 모습 찾은 '이성계 유리 사리병' 첫 공개

국립춘천博 보존처리 완료해
8월 15일까지 전시에서 공개
조사로 '석영유리' 재질 확인

보물 제1925호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가 보존 처리를 통해 제 모습을 찾고 최초 공개된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울림)은 "특별전 '오색영롱-유리, 빛깔을 벗고 투명을 입다'에서 새롭게 보존처리를 마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유물인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는 1932년 금강산 월출봉에서 가장 바깥쪽 백자 사발 안에 청동완과 팔각당형 사리기, 라마탑형 사리기를 차례로 넣고, 제일 안쪽에는 원통형 모양의 유리 사리병을 봉안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전 출품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유리 사리병을 보존처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유리 사리병이 높은 수준의 제작기술을 보여주는 무색투명한 '석영유리'로 제작됐음이 처음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석영유리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유리구슬이 유일했으나 유리제 사리병으로는 첫 사례"이라며 "향후 유리제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을 가득 담은 무색투명한 왕의 유리 사리병은 오는 8월 15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특별전 '오색영롱-유리, 빛깔을 벗고 투명을 입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자살예방센터 전국네트워크 시급"

생명존중정책 민 · 관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5월 28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우리나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7개 종단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각 종단 대표가 모여 자살예방방안을 논의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토론에서 "인터넷과 유튜브 등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 종교의식에서의 자살예방 필요성 주지, 유가족 템플스테이 등 관계자 정신 치료, 성직자 대상 생명교육 등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이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종교자살예방센터의 지속 설립이 필요하다. 불교계는 불교자살예방센터의 전국네트워크와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진 왼쪽부터 보물로 지정예고된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의 전경.

팔공산 주요 고찰 전각들 '보물'된다

문화재청, 5월 25일 지정예고
지역특색 불전 3곳 가치 인정

17~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고찰들의 불전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

송림사의 주불전인 칠곡 송림사 대웅전은 임진왜란의 전란을 겪은 후 1649년에 중수됐으며 이후 1755년, 1850년 두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옆면 3칸 규모인데 17세기 이후 재건한 불전이 정면 3칸, 옆면 2칸을 채택했던 추세와 달리 이전의 규모를 지키고 있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1600년(선조 33년)에 중건을 시작하였고, 그 중 금당(金堂)을 제일 먼저 건립했는데 지금의 극락전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헌기록을 통해 1622년에 중창되었음을 확인했다.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은 극락전의 뒤쪽에 있으면서 고금당(古金堂)이라고 전한다. 1465년(세종 11년)에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뒤 1702년(숙종 28년)에 중창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문화재청은 "3건의 보물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당시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같은 계보의 기술자 집단에 의해 조영된 건축물"이라면 "시대적으로 앞서고 각각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 역사, 학술적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명나눔, 조계종 복지재단과 공동사업

6월 2일 업무협약, 난치병 어린이 돕기 진행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2일 본부 회의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일면 스님과 보인 스님,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 생명나눔 박종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인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재단의 사업과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사회복지재단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추천하는 난치병 어린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면 스님은 "불교사회복지 발전과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사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인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치병 환아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선정된 환아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